



손종희(서울신대)

1. 들어가는 말

20세기 초에 레온하르트 로스트(Leonhard Rost)는 사무엘하 9-20장 & 열왕기상 1-2장이 다윗의 왕위 계승이라는 독특한 주제로 짜여져 있는 하나의 독립된 문학단위를 형성하는 ‘왕위 계승내러티브(Thronfolgegeschichte)’라고 주장하였다.¹⁾ 그의 연구 이후 다윗의 왕위 계승은 구약신학의 주요 주제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²⁾ 로스트

* 이 논문은 제 101차 한국구약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1) Leonhard Rost, *Die Übertieferung von der Thronnachfolge Davids*. BWANT 42 (Stuttgart: Kohlhammer, 1926). 이 책의 영역판은 M. D. Rutter & D. M. Gunn에 의해 *The Succession to the Throne of David* (Sheffield: Almond Press, 1982)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이후로 '왕위 계승내러티브'는 '계승내러티브(SN)'로 줄여서 언급한다.

2) 계승내러티브에 관한 연구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R. N. Whybray, *The Succession Narrative: A*

에 의하면, 이 내러티브 전체가 “누가 내 주 왕의 보좌에 앉을 것이고 그를 이어 통치할 것인가?”(왕상 1:27)라는 이 하나의 질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 물음에는 계승기사(SN) 저자의 시대적 배경과 그와 동시대에 살았던 대중들의 정치 사회적 상황이 잘 반영되어 있다.³⁾

다윗 왕국은 어떤 후계자가 왕위를 계승하느냐에 따라서 왕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누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것인가?’ 확실히 이것은 다윗연구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주제이다. 고대 근동 및 이스라엘의 왕위 계승법에 의하면 다윗의 왕위 계승 서열 1위는 당연히 장남 압논이다.⁴⁾ 그러나 다윗 왕궁에서는 전통적인 왕위 계승 순위가 완전히 뒤틀려버린다. 다윗 궁중에서는 계승이 순조롭지 못하였으며, 계승을 둘러싼 왕자들의 피비린내 나는 권력 암투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뒤틀림의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편집의 손길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왜 왕위 계승을 주

Study of II Samuel 9-20 and I Kings 1 and 2 (London: SCM Press, 1968); R. A. Carlson, *David the Chosen King: A Traditio-historical Approach to the Second Book of Samuel* (Uppsala: Almqvist & Wiksells, 1964); J. P. Fokkelman, *Narrative Art and Poetry in the Books of Samuel: A Full Interpretation Based on Stylistic and Structural Analyses*, V. I, *King David (II Sam. 9-20 & I Kings 1-2)* (Assen: Van Gorcum, 1981); D. M. Gunn, “Traditional Composition in the ‘Succession Narrative,’” *VT* 26(1976), 214–229; P. R. Ackroyd, “The Succession Narrative(socalled),” *Int* 35(1981), 383–396; J. Blenkinsopp, “Theme and Motif in the Succession Narrative(2 Sam. XI: 2ff.) and the Yahwist Corpus,” *VTSup* 15 (1966), 44–57; J. Flanagan, “Court History or Succession Document? A Study of II Samuel 9–20 and I Kings,” *JBL* 91 (1972), 172–81; H. Hagan, “Deception as Motif and Theme in 2 Sam 9–20; 1 Kgs 1–2,” *Bib* 60 (1979), 301–326; G. Keys, *The Wages of Sin: A Reappraisal of the ‘Succession Narrative’* (JSOTSup 221,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 3) SN의 기록 시기와 관련하여 대다수의 연구가들은 로스트의 견해를 따라 SNO1 솔로몬의 통치 초기인 주전 10세기에 기록된 것으로 본다.
- 4) 고대 왕위 계승에 관한 칙령인 히타이트 텔레피누법에 의하면, 왕위 계승 서열은 다음과 같다: 1. 왕위 서열 1위는 (정실부인의 아들) 왕자만 왕이 되어야 한다. 2. 서열 1위의 왕자가 없으면 서열 2위 (후궁에게 난 아들) 아들이 왕위 된다. 3. 왕에게 아들이 없는 경우는 정실부인의 딸의 남편인 사위가 왕이 된다. 이와 유사하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왕위 계승의 우선권은 장자에게 있었다. 이종근, “히타이트 텔레피누 칙령과 고대 이스라엘의 왕위계승,” 『구약논단』 43집 (2012년 3월): 178–204.

제로 하는 SN이 기록되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하여, 네 명의 왕위 후보자들을 순위대로 살펴보고 SN 저자가 이 내러티브를 기록한 목적과 의도를 살펴본 후, 로스트의 이론을 재평가하고자 한다.

2. 왕위 계승 서열 1위: 암논(삼하 13-14장)

1) 다윗의 자녀 목록

다윗은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던 헤브론(6명)과 수도로 정한 예루살렘(20명 이상)에서 많은 자녀를 얻었으며, 이들 중 암논은 장남으로서 왕위 계승 1순위에 해당되는 인물이다.

헤브론에서 얻은 아들 (삼하 3:2-5)	예루살렘에서 얻은 아들 (삼하 5:13-16; 대상 3:1-5)
아히노암 → 암논	밧세바 → 시므아, 소밧, 나단, 솔로몬
아비가일 → 길르압	그 외 여인들 → 입할, 엘리사마, 엘리벨렛, 노가, 네벵, 야비아, 엘리사마, 엘라다, 엘리벨렛 등
마아가 → 압살롬	
학깃 → 아도니아	
아비달 → 스바다	
에글라 → 이드르암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이 여러 아내들로부터 많은 아들들을 얻었다는 것은 한 왕가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복형제 왕자들의 공존이 잠재적인 권력 투쟁의 전조를 의미하며 후계 구도가 간단치 않음을 알 수

있다.⁵⁾ 그것은 왕실의 미래에 짙은 먹구름이 몰려 올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2) 암논과 다말 이야기: 사랑이야기인가 왕위쟁탈전인가?

사무엘하 13장은 암논과 다말의 비극적인 러브스토리를 소개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암논과 다말 이야기에서 그들의 사랑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의 문제로 논쟁하여 왔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복누이와의 결혼 문제에 관하여, 프로프(W. H. Propp)를 비롯하여 앤더슨(A. A. Anderson)과 드보(R. de Vaux)는 아브라함이 이복동생인 사 را를 아내로 맞이한 경우(창 20:12)를 예로 들며 암논과 다말의 결혼이 가능하다고 보았다.⁶⁾ 이와 달리 웬함(G. J. Wenham)과 버젠(R. D. Bergen)은 토라 자체가 이복누이와의 결혼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암논과 다말의 결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레 18:9, 11, 20; 신 27:22). 이들에 의하면, 다말은 시간을 벌기 위하여 자포자기하여 결혼을 제안하였으며(13:13), 암논은 본능적으로 강간을 한 것이라기보다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것이다.⁷⁾ 특히 맥카터(P. K. McCarter)는 암논이 그 사건 이후 다말과 정식으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거나,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지도 않았으며(출

5) 김화권, “통일군주 다윗의 남북화해와 통일정치,” 『구약논단』 47집 (2013년 3월), 95-132.

6) W. H. Propp, “Kinship in 2 Samuel 13,” CBQ 55 (1993), 39-53; A. A. Anderson, *2 Samuel*, WBC 11 (Waco, TX: Word Books, 1989), 174; R. de Vaux, *Ancient Israel: Its Life and Institutions* (New York: McGraw-Hill, 1961). 특히 프로프는 이에 관해, 암논과 다말의 결혼은 3가지 이유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다말은 처음에는 자원하였으나(13절) 후에 자포자기하였다(16절). 둘째, 본문 자체가 암논의 행위가 치명적인 죄나 중대한 죄라고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2절에서 암논이 다말을 좋아하게 된 실제적인 이유는 그의 욕망이 처녀 다말을 향한 것이다.

7) 웬함은 “누이”(13:1, 2, 4, 5, 6, 11, 20, 22)와 “오빠”(13:3, 4, 7, 8, 10, 12, 20)라는 용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G. J. Wenham, “B^otûlâh ‘A Girl of Marriageable Age,’” VT 22 (1972), 326-348. cf. R. D. Bergen, *1, 2 Samuel*, NAC 7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6), 381.

22:16-17; 신 22:28-29), 동생을 무력으로 겁탈한 하였으므로 강간죄와 근친상간의 죄 둘 다를 면할 수 없다고 보았다.⁸⁾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해석은 사무엘하 13-14장을 사무엘하의 전체적인 맥락과 함께 읽지 못하는 단점을 가진다. 이것은 암논과 다말의 사랑이야기라기보다, 오히려 15장부터 시작되는 압살롬 반란 내러티브의 서막이라는 또 다른 측면의 해석이 가능하다.⁹⁾ 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으로 부터 도망쳐 그술에서 오랫동안 살아야 했으며, 왜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켜 죽음을 맞게 되는지의 그 이유를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폰 라트(G. von Rad)가 13장이 정치적 상황과 관련되는 일련의 사건들로 시작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특히 13장 1-22절이 다윗 가문에 계속되는 엄청난 위기의 기원을 이야기한다고 주장한 것은 옳은 견해이다¹⁰⁾. 그와 함께 와이브레이(R. N. Whybray)와 앤더슨도 암논과 다말 이야기를 단순한 러브 스토리가 아닌 다윗의 왕위쟁탈전이라는 더 넓은 상황에서 이해할 것을 강조하였다.¹¹⁾ 위 도표의 후계 구도에서 예상됐던 첫 번째 먹구름인, 왕위계승을 위한 두 라이벌 장남 암논과 차남 압살롬 이야기가 사무엘하 13장에서부터 드라마틱하게 소개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¹²⁾ 즉 암논과 다말 이야기는 텍스트 표면적으로는 사랑이야기이지만, 심층적 차원에서는 왕위 계승이야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8) P. K. McCarter, *II Samuel: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Notes and Commentary*, AB 9 (Garden City, NY: Doubleday, 1984), 324.

9) Rost, *윗글*, 84; P. K. McCarter, "Plots, True or False: The Succession Narrative as Court Apologetic," *Int* 35 (1981), 355-367; J. P. Fokkelman, *윗글*, 101; A. A. Anderson, *윗글*, 172. 콘로이(C. Conroy)는 이 단락이 암논과 다말 이야기를 대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압살롬이 시작부터 이 장면을 그늘지게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C. Conroy, *Absalom, Absalom! Narrative and Language in 2 Sam 13-20*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78), 6, 26, 92-93.

10) G. von Rad, "The Beginnings of Historical Writing in Ancient Israel," in *The Problem of the Hexateuch and Other Essays* (Edinburgh: Oliver & Boyd, 1966), 166-204.

11) G. von Rad, *윗글*, 181; R. N. Whybray, *윗글*, 22; A. A. Anderson, *윗글*, 172.

12) 암논은 다윗의 맏아들이므로 계승의 선두 주자인 반면, 압살롬은 차남인 길르암(삼하 3:3)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서열 2위에 해당되므로 암논의 강한 라이벌이 된다.

우선 13장 1절에서 주요 등장인물의 순서가 압살롬, 압살롬의 누이 다말, 암논 순으로 소개되고 있음이 흥미로운 대목이다. 여기서 다말이 다윗의 딸보다 압살롬의 누이로 소개되는 것은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주인공이 다말과 암논이 아닌 압살롬이라는 것을 예시하는 것이다. 앤더슨이 지적하였던 것처럼, 암논이 다말에게 사랑의 연정으로 접근한 것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며, 처음부터 왕위권의 라이벌인 압살롬 집안의 콧대를 꺾으려는 음모의 일환이었을 가능성이 높다.¹³⁾ 여기서는 암논과 이복누이 다말과의 사랑과 결혼 문제가 중점이 아니라 다말과 압살롬이 친남매 사이였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다말에 대한 암논의 사랑과 미움은 심리적이고 정치적인 배경에서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3) 암논과 압살롬: 왕위 계승의 라이벌

압살롬은 다말에게서 자초지종을 듣고 분개심을 애써 감추며, “그는 네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13:20)고 동생을 위로하는 대목에서도 그의 정치적 목적이 드러난다. 여기서 압살롬이 다말에게 오라버니이므로 결혼을 요청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것은 혈육관계이므로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인 압살롬의 반대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다. 그들이 결혼하게 되면 암논의 왕위계승이 더욱 확고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압살롬은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음속 깊이 숨겨두고 복수할 날을 기다리는 것이다.¹⁴⁾ 저자는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라”(13:22)고 이 단락을 매듭지음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압살롬의 행

13) A. A. Anderson, *룻*, 172.

14) W. H. Propp, *룻*, 45.

동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기대하게 만든다. 동생을 육보인 암논에 대해 압살롬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조용하게 덮어주고 살든지, 여동생 디나의 복수를 실행한 레위나 시므온처럼 정면으로 맞서 해결하는 것이다(창 34). 그가 후자를 선택하리라고 예측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암논을 죽이고 나면 자신이 다윗의 후계자가 될 입지가 마련될 것이므로 압살롬도 암논을 칠 충분한 이유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이와 같이 암논과 다말 이야기가 단순한 사랑이야기가 아니라 그 실제적인 배경은 암논과 압살롬 사이의 긴장과 대립이며, 그 대립의 핵심이 바로 다윗의 왕권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말은 두 라이벌의 왕위 쟁탈을 비추는 조연이며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비극적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 대립의 절정은 압살롬이 2년 동안이나 암논을 죽이기 위한 계략을 품고 있던 중 양털 깎기 행사 때 그를 초청하여 술에 취하도록 한 후 종들로 하여금 살해하기에 이른다(13:28-29). 축제의 장소에 초대된 암논과 모든 왕자들 앞에서 무서운 피비린내 나는 형제살육이 벌어진 것이다.¹⁵⁾ 이 모든 것은 압살롬이 단지 복수의 칼날을 뽑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왕위에 오르려고 시도한 야심찬 왕위 계승 투쟁의 일면을 보여 주는 것이다.

4) SN 저자와 암논의 계승 탈락 이유

SN 저자가 다윗 왕궁에 관한 이전의 단편적인 여러 자료들을 기초하여 암논이야기를 자신의 필치로 편집한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가 살았던 솔로몬 왕 초기의 역사적 정황은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

15) 암논의 살해와 관련하여 비텐하르트(S. K. Bietenhard)는 “죽음을 불러오는 손님접대의 모티브”가 들어 있다고 보았다. 그는 사무엘하에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의 죽음(11장)과 아브넬의 암살사건(3장)도 이러한 “손님접대”의 맥락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고 주장한다. S. K. Bietenhard, *Des Königs General. Die Heerführertraditionen in der vorstaatlichen und frühen staatlichen Zeit und die Joabgestalt in 2 Sam 2-20; 1 Kon 1-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8), 147, 266-267.

른 사실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며 왕궁과 새 왕에 대한 추문들이 유포되었다. 어떻게 솔로몬이 손위의 다른 형들을 제치고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는가? 다윗 왕궁 내에 어떤 당파적 싸움이 있었던 것인가?

SN 저자는 다윗 궁중의 한 멤버로서 당시의 이러한 정황을 자세하게 알고 있었으며, 왜 계승 1순위인 장자 암논이 탈락되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가에 대한 최소한의 해명이나 정당성이 그에게 요구되었을 것이다. 그는 이에 부응하기 위해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계승 내러티브를 기록하게 되었다. 첫째로, 친-솔로몬적 입장(pro-Solomonic)에서 솔로몬의 영광을 위하여(in majorem gloriam Salomonis) 붓을 들었다. 둘째로, 그는 암논과 다말 스캔들을 신학적으로 해석하여 어떻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내러티브를 기록하였다.

솔로몬 변증가(Solomonic apologist)로 활동한 저자는 암논이 다윗의 장남인지라 왕위 서열 1위임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의 후계자로 적합한 인물이 될 수 없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암논이 욕정을 참지 못해 누이동생을 겁탈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와의 율법을 어긴 중대한 범죄자임을 부각시킨다. 다말에게 행한 암논의 강제 폭행은 그의 나쁜 성격에서 기인한 것이며, 그러한 행동은 암논을 교제가 불가능한 사람이거나 난폭한 에고이스트로 폭로하는 것이므로 왕의 자격으로서는 불충분하다.¹⁶⁾ 저자는 사무엘하 13장 12절에서 암논이 다말에게 행했던 것을 ‘어리석은 일’(אִי־חָכְמָה)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구약에서 이 용어가 사용된 용례를 보면, 이스라엘에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부도덕한 범죄, 특히 겁탈(삿 20:6, 10), 혼전 성관계(신 22:21), 간음(렘 29:23) 그리고 동성

16) J. P. Fokkelman, *윗글*, 108.

성관계(삿 19:23) 등과 같은 성적 범죄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¹⁷⁾

따라서 SN 저자의 눈에는 정육의 종이 된 암논이 자신의 그릇된 욕정으로 누이를 강간하였을 뿐 아니라 그녀를 길거리로 내동댕이친 무책임한 행동으로 다말을 불행한 여인으로 만든 파렴치한이다. 이러한 자는 아무리 장자일지라도 왕이 될 자격을 이미 상실하였음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3. 왕위 계승 서열 2위: 압살롬(삼하 15-18장)

1) 압살롬 반란의 배경

왕위 계승의 선두주자인 암논이 살해된 후, 이제 왕위는 최우선 후보인 압살롬에게 돌아갈 것이다. 14장 마지막 절에서 다윗이 드디어 압살롬을 용서하고 화해의 입맞춤을 하는 것은 압살롬을 차기 왕으로 지정하는 상징적인 행동처럼 보였다. 그러나 왕위 계승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으며, 오히려 15장에서부터 스릴 있는 압살롬의 반란 이야기가 소개된다. 왕위를 둘러싼 다윗 왕궁내의 내적 긴장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사건이 바로 이 반란이다.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은 자기 어머니의 고향인 그술 왕국으로 피신하여 방랑생활을 하게 된다. 왜 하필 압살롬은 그 곳으로 도망하였을까? 어쩌면 외가의 배경을 입어 왕위에 오르려는 야심이 아니었을까! 그 후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지만 암논의 일로 더 이상 부왕의 마음을 차지할 수 없다는 조급함이 생기자 반란을 꿈꾸게 된다. 자신이 그술에 피신하여 있는 동안 동생 아도니야가 왕가나 사람들에게 차

17) W. M. W. Roth, "NBL," VT 10 (1960), 394-409; P. K. McCarter, *룻글*(1984), 323.

기 왕으로 지목되었을 것이라 생각하였는지도 모른다. 형제간의 권력 다툼을 넘어 이제 부자지간에 권력투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와인그린(J. Weingreen)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압살롬 반란의 원인이 왕권을 둘러싼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다윗이 왕국을 통치함에 있어서 백성들에 대한 관심과 통치력 약화(결점, 연약성)에서 기인했다고 본다.¹⁸⁾ 그러나 그러한 요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데 영향은 미쳤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왕권 야망을 드러내는 압살롬의 분명한 정치적 의도임에 틀림없다.¹⁹⁾ 압살롬이 반란을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본다면, 그의 목적은 오로지 왕권 그 자체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2) 압살롬의 반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며 민중의 환심과 존경을 일시에 끈 방법은 자신이 위대한 사람인 동시에 선한 사람으로 보여 지게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3 단계 반란 작전을 시행한다.

먼저 15장 1절에서 압살롬은 반란의 제1 단계로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친위대를 조직하여 아주 당당하게 자신의 위엄을 과시한다. 그의 행동은 차기 왕으로서의 위용을 갖추어 민심을 끌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말과 병거에 집착하는 것은 율법의 왕 제도 규정을 어기는 것이다(신 17:16; 삼상 8:11). 압살롬의 이러한 계획적 행동에 대하여 앤더

18) 와인그린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주된 요인이 전쟁 중에 보인 다윗의 잔인함과 밧세바와의 사건이라고 보았으며, 노트 역시 그 원인을 다윗의 탓으로 돌렸다. 이와는 달리 존 브라이트(John Bright)는 압살롬의 막연한 불만의 칼이 증가하여 반란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J. Weingreen, "The Rebellion of Absalom," VT 19 (1969), 263-266; M. Noth, *The Deuteronomistic History* (JSOTSup 15, Sheffield: JSOT Press, 1981), 200; J. Bright, 『이스라엘의 역사』 엄성욱 역 (서울: 은성, 2002), 266-267.

19) 포켈만은 압살롬 자신의 자만심, 야망, 반역성, 권력을 향한 시도의 동기는 의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J. P. Fokkelman, *룻*, 242.

슨은 압살롬이 병거를 준비한 목적 자체가 왕권이라고 보았으며,²⁰⁾ 콘로이(C. Conroy) 역시 이 행동에는 압살롬의 자기 과시와 왕권에 대한 집착이 숨겨져 있음을 지적하였고,²¹⁾ 포켈만은 “과대 망상적 행동”이라고 평가하였다.²²⁾

다음으로,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하여 자신이 정의의 재판관을 행사하는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한다(15:2-4). 그가 송사 때문에 왕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왕 대신 자신이 친절하게 주도하며 백성들 앞에서 재판장으로 자처한 것은 압살롬의 정치적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는 왕의 사법적 권한을 침해하여 다윗과 백성들 사이를 이간시켜 백성들의 민심을 자기편으로 돌리는 교묘한 정치적 술수를 쓴다. 특히 자신을 찾아온 백성들이 군주제의 방식에 따라 절하는 ‘복종의 인사’ 받기를 거부하고, 같은 서열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관행적 인사법인 ‘형제의 키스’를 행함으로(15:5) 자신이 동등성의 삶의 규범이 통용되는 사회로 회복시킬 수 있는 참 지도자임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²³⁾ 반란의 제2단계로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였지만(15:6), 압살롬에게 있어서 백성들은 그의 왕권 쟁취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렇게 민심을 빼앗은 압살롬은 반란의 마지막 단계로 서원 제사를 드리기 위해 헤브론에 가겠다고 요청하여 그 곳에서 왕으로 등극하고자 한다(15:10). 압살롬은 전국에 미리 준비해 둔 밀사들을 모든 이스라엘 지역에 보내어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도록 지시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거사에 끌어들이기 위해 예루살렘 성의 고위 지도자급 200명의 인사와 다윗의 모사

20) A. A. Anderson, *룻*, 194.

21) C. Conroy, *룻*, 103.

22) J. P. Fokkelman, *룻*, 166.

23) 이희환, “이스라엘 왕국 초기에 일어난 반왕권적 저항들—압살롬과 세바의 반란이 갖는 역사신학적 의미,” *구약논단* 10집 (2001년 4월), 43-63.

인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갔다. 왜 헤브론으로 갔을까? 헤브론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반란에 적합한 곳이기 때문이다.²⁴⁾ 그곳은 고대 야훼의 성소였으며, 부친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즉위하여(삼하 2:4)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곳이다(삼하 5:1). 특히 그는 헤브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삼하 3:3) 반란을 위한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용이하였을 것이다.

반란 작전의 성공으로 당시의 정치적 상황은 급속도로 압살롬에게 유리해졌다. 헤브론에 있는 성소에서 서원을 드리겠다는 야훼 신앙을 자극하자 이스라엘의 민심은 삼시간에 압살롬에게로 향하였고, 이제 마지막 남은 과제는 이미 모든 준비를 갖추고 대기 중인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여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는 일만 남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압살롬은 이토록 쉽게 손아귀에 넣을 수 있는 왕위를 차지하지 못한 채 다윗의 군대에게 역전패를 당하며 계승에 실패하게 된다. 왜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키면서까지 그토록 갈망한 왕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가? 다윗 궁중의 한 멤버로서 당시의 이러한 정황을 자세히 알고 있었던 SN 저자의 손길이 사뭇 기대가 된다.

3) SN 저자와 압살롬의 계승 탈락 이유

솔로몬의 변증가인 SN 저자가 계승 서열 1위였던 암논이 율법을 어긴 자신의 죄로 인해 계승에서 탈락된 이유를 지적하였던 것처럼, 서열 2위였던 압살롬이 다윗의 후계자로 적합한 인물이 될 수 없는 이유 역시 그가 범한 여러 가지 죄 때문임을 부각시킨다. SN 저자의 눈에 비친 압살롬의 죄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형 암논을 살해한 죄이다. 암논이 다말을 범한 것도 큰 범죄이

24) A. A. Anderson, *룻*, 196.

지만, 그로 인해 형을 살해한 압살롬의 죄는 더 큰 범죄로 결코 용납될 수가 없다. 엔센(J. L. Jensen)은 압살롬이 종을 시켜 암논을 죽였고 자신은 직접 죽이지 않았으므로 압살롬의 죄가 덜하다고 주장하였다.²⁵⁾ 그러나 아비오즈(M. Avioz)는 성경 어디에도 살인자의 죄가 가볍게 취급된 적은 없으며, 압살롬의 살인죄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²⁶⁾ 압살롬이 형을 살해한 것은 누이에 대한 보복과 동시에 왕권 찬탈을 위한 반란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암논과 다말 사건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계승 서열 1순위에 올려놓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었다. 앞선 암논의 사건에서 보았던 것처럼, SN 저자는 야훼의 율법을 거스르고 살인죄를 범한 자는 아무리 최우선의 후보일지라도 왕위에 오를 수 없음을 재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부왕 다윗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반란을 일으킨 죄이다. 압살롬은 왕 다윗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심지어 다윗이 왕위에 올랐던 헤브론에서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고자 하였다. 압살롬이 살아있는 다윗을 폐위시키고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다. 아무리 연약한 아버지일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므로 그에 맞서 반란을 주도한 것은 명백한 죄이다.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함으로써 계승 서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 것이 사실이지만, 아버지의 왕권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계승 순위임에도 불구하고 후계자가 될 수 없음을 SN 저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왕의 후궁들을 성추행한 중죄이다. 당당하게 개선장군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뒤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25) J. L. Jensen, "Desire, rivalry and collective violence in the Succession Narrative," JSOT 55 (1992), 39-59.

26) M. Avioz, "Divine Intervention and Human Error in the Absalom Narrative," JSOT 37 (2013), 339-347.

서 대낮에 다윗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한다(16:20-22). 기고만장한 그는 가장 가혹한 방식으로 아버지에 대한 경멸을 표시한 것이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취한 행동은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진다. 첫째는 살아있는 부친을 대신하여 왕위를 공식화하는 최후의 상징 행위라는 것이며,²⁷⁾ 둘째로 이전 왕의 파위를 종식한다는 의미, 즉 왕권이양의 사인(sign)이 되는 것이다.²⁸⁾ 맥카터는 압살롬이 다윗의 후계자가 될 수 없는 분명한 이유는 바로 다윗의 후궁들을 취한 바로 이 중죄 때문이라고 보았다.²⁹⁾

이처럼 SN 저자의 눈에 비친 압살롬은 자신의 살인죄를 덮어주었던 아버지의 자비를 이용하여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을 모략을 꾸며 반란을 주도하였으며 부왕의 후궁들을 취한 파렴치한이다. 아무리 계승 서열 최우선의 왕자일지라도 율법을 거스른 이러한 중범죄자는 결코 왕위를 이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

4. 왕위 계승 서열 3위: 아도니아(왕상 1:1-10)

1) 아도니아 반란의 배경

열왕기상 1장 1절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고 시작된다. 초두에 다윗 왕의 노환을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다윗이 기력이 쇠하고 연로하여 더 이상 국정을 이끌어갈

27) M. Tsevat, "Marriage and Monarchical Legitimacy in Ugarit and Israel," JSS 3 (1958), 237-243; H. Hagan, *윗글*, 301-326; J. Robinson, *The First Book of Kings*, CBC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1972), 239; A. A. Anderson, *윗글*, 214.

28) H. W. Hertzberg, *I & II Samuel: A Commentary*, OTL (London: SCM Press, 1964), 350; J. P. Fokkelman, *윗글*, 210.

29) P. K. McCarter, *윗글*(1981), 359.

처지가 못 된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다.³⁰⁾ 특히 왕의 노환은 자신의 후계자를 정할 시점이 임박했음을 알려 주는 것이다.³¹⁾ 다윗은 통치 말 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아도니야가 다윗의 계승자로 자처하며 반란을 꾀하게끔 되는 배경을 제공해 준다. 따라서 열왕기상 1장 1-4절 단락은 다윗 말년에 일어난 궁중 쟁탈전의 필연적인 배경을 제공함으로써 왕위계승을 위한 마지막 쟁탈전인 아도니야와 솔로몬의 대결의 서론으로 생생한 기능을 한다.³²⁾

2) 아도니야의 즉위식은 친목인가 반란인가?

다윗의 노환 상태를 간파한 아도니야는 왕이 되고자 하는 야심으로 재빠르게 반란을 일으킬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 그는 스스로 높여 자신이 왕이 될 것을 당연시하면서 주요 인사들을 모아 큰 잔치를 벌이게 된다. 플라나간(J. W. Flanagan)과 건 같은 학자들은 아도니야가 이러한 잔치를 한 것이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더불어 연대감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지 역모를 꾸미려 한 행동은 아니라고 주장한다.³³⁾ 그러나 그가 벌인 일련의 행동들은 압살롬이 왕위 찬탈을 위해 반란을 일으켰을 때와 매우 흡사한 점을 고려할 때 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³⁴⁾ 오히려 이들의 유사성은 독자들로 하여금 아도니야가 취한 행동 역시 반역

30) J. P. Fokkelman, *윗글*, 348.

31) J. Robinson, *윗글*, 25; J. W. Flanagan, *윗글*, 174.

32) J. P. Fokkelman, *윗글*, 345; R. N. Whybray, *윗글*, 30.

33) J. W. Flanagan, *윗글*, 174-175; D. M. Gunn, "David and the Gift of the Kingdom (2 Sam 2-4, 9-20, 1 Kg 1-2)," *Semeia* 3-4 (1975), 14-45.

34) 대부분의 학자들은 압살롬(삼하 15:1)과 아도니야(왕상 1:5) 사이의 많은 유사성을 강조하였다. N. H. Snaith, "The First and Second Books of Kings," in *The Interpreter's Bible* V. III (New York/Nashville: Abingdon, 1952), 20; H. W. Hertzberg, *윗글*, 336; R. N. Whybray, *윗글*, 30; H. Hagan, *윗글*, 320; D. M. Gunn, *The Story of King David: Genre and Interpretation* (USOTSUP 6. Sheffield: JSOT Press, 1978), 93; J. P. Fokkelman, *윗글*, 348; P. K. McCarter, *윗글*(1981), 365.

이며, 압살롬과 유사한 실패의 그림자를 예견케 한다. 아도니야가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시도한 세 가지 일을 압살롬과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아도니야의 군사적인 준비에서 그러하다. 압살롬은 반란의 제 1단계로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자신의 친위대를 조직함으로써 반란의 준비 작업을 착수하였다(삼하 15:1). 아도니야 또한 “내가 왕이 되리라”(5절)는 허영심을 품고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오십 명을 구성하여 자신을 보좌할 군사들을 준비한다.

둘째, 군사 참모인 요압과 종교적 조언자인 아비아달을 최측근으로 세웠다는 점이다(7절). 국가적인 반역은 혼자 일으킬 수 없으며 동참하는 자들이 있듯이, 아도니야는 그의 동참 세력으로 정통 왕조파³⁵⁾ 두 명의 힘을 의지하게 된다. 즉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다. 그들은 다윗 사후 자신들의 정치적, 종교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실리적 목적으로 아도니야의 음모에 가담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압살롬과 아도니야 둘 다 그들의 추종자들을 모아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점이다. 압살롬이 자기의 거사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정치적 주요 인사들을 헤브론으로 데리고 갔던 것처럼(삼하 15:7-8, 11), 아도니야 또한 자신의 추종자들을 불러 모아 양과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었다(9절). 아도니야는 스스로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는 “즉위식 잔치”를 벌인 셈이다.³⁶⁾ 이것은 어떠한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즉위식이다. 더욱이 그가 다윗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비밀리에 일급 요원들을 모두 모았다는 점에서 압살롬보다 더 계산된 역모 주도자임이 분명하다. 초대된 사람들은 왕자들과 왕의 신하된 유

35) J. A. Montgomery,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f the Books of Kings*. ICC. (Edinburgh: T & T Clark, ²1960), 73.

36) N. H. Snaith, *윗글*, 18-22; J. P. Fokkelman, *윗글*, 350. 이와는 달리, 건은 아도니야의 잔치가 실제 즉위식은 아니라고 보았다. D. M. Gunn, *윗글*(1978), 106.

다 모든 사람들, 군사령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 및 궁중 신하들을 비롯한 정치, 군사, 종교적으로 주요 핵심 인물들이다. 아도니아의 정치적 기반 역시 유다 헤브론에 있었기 때문에 남쪽 유다 사람들을 중심으로 부른 것이며, 반면에 예루살렘의 신진 세력들은 초대하지 않았다.³⁷⁾ 모든 왕자들을 초대하면서 왜 솔로몬만 초대하지 않았을까? 그는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할 것을 직감하여, 라이벌 솔로몬보다 한발 앞서 자신이 왕이 되고자 계산된 정치세력들을 규합한 것이다. 잔치를 하는 동안 그의 지지 세력들은 이미 아도니아를 왕으로 선포하였다(13, 18, 24, 25절).

초대된 사람들로 보아 다윗의 궁전 내부에 분쟁을 일으킨 두 라이벌 파에 대한 다음과 같은 도표가 그려지게 된다.

친-아도니아파	반-아도니아파	
목록 1 (왕상 1:7, 9)	목록 2 (왕상 1:8)	목록 3 (왕상 1:10)
요압	사독	나단
아비아달	브나야	브나야
왕궁의 모든 왕자들	나단	다윗의 용사들
왕궁의 모든 신하들	시므이와 레이	솔로몬
	다윗의 용사들	

만약 아도니아가 베풀었던 잔치가 반란을 위한 음모가 아니었다면

37) 학자들은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갈등과 분쟁의 문제를 그들의 출생지와 관련하여 다양하게 설명한다. 프로방(I. W. Provan)은 아도니아의 출생지인 유다에 기반을 둔 다윗의 옛 동료들과 솔로몬의 출생지인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한 신진 세력들과의 갈등으로 보았다. I. W. Provan, "Why Barzillai of Gilead (I Kings 2:7)?, Narrative Art and the Hermeneutics of Suspicion in I Kings 1-2," Tyndale bulletin 46 (1993), 103-116. 또한 브뤼거만(W. Brueggemann)은 아도니아를 따르는 자들은 옛 연약전통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신학적 보수주의를 지향하고, 솔로몬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이스라엘을 국제 무역과 번영으로 향하고자 하는 개혁정책을 추구하는 자들이라고 주장하였다. W. Brueggemann, *1 & 2 Kings*. SHBC (Macon, GA: Smyth & Helwys, 2000), 12. 멘덴홀(G. E. Mendenhall)은 헤브론에 중심을 둔 야훼 종교에 충실한 토착세력인 아도니아파와 예루살렘을 중심한 여부스-가나안적 이념을 따르는 솔로몬파의 대립으로 보았다. G. E. Mendenhall, "The Monarchy," *Int* 29 (1975), 155-170.

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인 친-아도니아파 무리들이 왜 놀라 각기 갈 길로 갔으며, 아도니아는 왜 그렇게 다급하게 성소로 달려가 제단의 뿔을 잡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구걸하였는가(49-50절)! 아도니아는 자신의 음모를 감추려고 종교적 제사로 위장한 역모의 잔치를 베풀었으나, 나단의 발 빠른 대응 때문에 왕위를 찬탈하려는 그의 야심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3) SN 저자와 아도니아의 계승 탈락 이유

다윗 궁중 내에서 솔로몬의 변증가로 활동한 SN 저자는 왕위 계승의 서열 1, 2위의 인물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다윗의 후계자로 부적합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것처럼, 서열 3위 아도니아 역시 왕위에 오를 수 없음을 단호히 말한다. SN 저자는 다음 두 가지 이유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고자 한 것이다. 1장 5절에서 “אני אמרוכי” (아니 엠로크)라고 스스로 외치는 아도니아의 태도를 보아, 그가 자만심과 허영심에 사로잡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포켈만이 주장한 것처럼, 이 구절은 교만한 아도니아의 성격을 나타냄과 동시에 왕권의 주제를 객관적으로 언급한 것이다.³⁸⁾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되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었기에, 부친 다윗이 선위를 언급하기 이전에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신속히 선포하였다. 형 압살롬이 반역의 시초에 했던 것처럼, 즉시 그는 군사적인 준비로 전배 50명을 세운다. 두 사람의 행동은 일종의 자기 과시이며 이스라엘 왕에게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그는 다윗이 죽은 후 부친의 후궁 아버지삭을 자기에게 줄 것을 밋세바에게 요청하기도 하였다. 아도니

38) J. P. Fokkelman, *뵈글*, 349.

야의 교만과 과욕은 끝이 없다. 아훤의 눈에 부왕의 후궁을 취하는 일은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취한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왕권 침탈과 반역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아도니야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한 점이다. 그는 누구를 잡아야 자신이 왕이 되는데 유리한지 면밀히 계산하여, 쿠데타를 위해 왕궁의 가장 중요한 두 핵심 세력을 자기편에 끌어들였다. 군대를 장악하는 것은 권력을 잡는데 기초이므로 군사령관 요압을 선택하였으며,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장을 자기편으로 포섭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므로 제사장 아비아달을 택하였다. 아도니야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을 의지한 것은 앞서 반란을 시도했던 압살롬의 경우와 흡사하다. 아도니야의 입장에서 본다면 요압을 포섭한 것은 이스라엘의 전체 군대를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이것은 솔로몬측의 브나야가 지휘하는 왕실 경비대보다 더 강력한 힘이 되었을 것이다³⁹⁾ 한마디로 요압은 아도니야의 반란 배후에 있는 대규모의 군사적인 힘을 대표하는 세력이다. 이 교활한 요압과 아비아달은 과연 아도니야 편에서 진정한 힘이 되었겠는가? 아도니야가 베풀었던 잔치가 거의 끝날 즈음에 솔로몬이 다윗왕의 공식적인 후계자로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아도니야를 축하하며 쿠데타의 성공을 만끽하던 요압과 아비아달을 포함한 모든 일당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만다(1:49-50). SN 저자의 눈에는 하나님 대신에 사람의 도움에만 의존하여 반란을 일으킨 아도니야에게 솔로몬의 즉위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결국 패망을 알리는 신호였던 것이다.

5. 솔로몬의 왕위 계승(왕상 1:11-53)

39) S. J. DeVries, *1 Kings*. WBC 12 (Waco, TX: Word Books, 1985), 13-14.

왕위 계승을 둘러싼 궁중내의 갈등과 분쟁의 이야기는 아도니아의 반란이 실패한 후 절정(Climax)에 이르게 되어, 그의 라이벌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함으로써 피비린내 나는 권력 쟁탈전이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듣고 경험한 당시 사람들은 풀리지 않는 여러 의문들을 가지게 되었다. 왜 유력한 후보들이 모두 탈락되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가? 솔로몬은 어떻게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까? 과연 솔로몬은 합법적인 계승자인가?

1) 나단과 밧세바의 역할

솔로몬의 왕위 등극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선지자 나단과 왕비 밧세바이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 환호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반-아도니아파에 속해 있던 나단은 신속히 밧세바를 만나 그녀와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자신의 계획을 “이제”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하기를 간청한다(12절). 이 구절에서 사용된 “**כִּי**”라는 관용구는 밧세바가 즉각적으로 긍정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의도한 SN 저자의 탁월한 용어 선택 기법이다.⁴⁰⁾ 그 말을 듣자마자 밧세바는 황급히 왕을 찾아가 아도니아가 왕이라고 선포한 반란의 심각성을 고함과 동시에, 이전에 다윗 왕이 자기에게 했던 맹세를 회상시키며 그 약속을 시행할 것을 간청한다.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중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1:17)⁴¹⁾

40) 율글, 14.

41) 포켈만과 드브리스는 “X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17절)는 이 구절이 로스트의 주제를 강조하는 것으로, 1장에서 거듭 반복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왕상 1:13, 17, 24, 30, 35. Cf. 왕상 1:20, 27, 46).

밧세바가 언급한 맹세란 사무엘하 7장 1-17절로,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자신의 뒤를 이을 후손에 대한 약속과 함께 그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두고 한 말이다. 나단을 통한 다윗의 맹세가 이곳 외에 다른 곳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맹세의 역사성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양분되어 왔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실제로 약속이 있었던 것일까? 나이 많아 기력이 쇠한 다윗을 교묘하게 이용했던 것일까?

스미스(M. Smith)를 비롯하여 뉴만(M. Newman), 알스트룀(G. W. Ahlström), 드브리스(S. J. DeVries) 같은 학자들은 다윗이 밧세바에게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실제로 맹세하였다고 주장하였다.⁴²⁾ 이들과는 반대로, 와이츠만(S. Weitzman)을 비롯하여 건과 이취다(T. Ishida) 같은 학자들은 그 맹세에 대한 역사성을 의심하여 나단과 밧세바가 다윗이 연로하여 판단력과 기억력이 흐려졌음을 기만하여 교묘하게 꾸며낸 술수라고 보았다.⁴³⁾ 그러나 밧세바의 말을 듣고 다윗이 그 말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맹세를 기억하고 즉시 실행에 옮겨

J. P. Fokkelman, *윗글*, 353; S. J. DeVries, *윗글*, 15.

42) M. Smith, "The so-called 'Biography of David' in the Book of Samuel and King," HTR 44 (1951), 167-169; M. Newman, *The People of the Covenant: A Study of Israel from Moses to the Monarch* (New York: Nashville, 1962), 167; Ahlström, "Solomon, the Chosen King," HR 8 (1968), 93-110; S. J. DeVries, *윗글*, 14-15; R. Alter,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New York: Basic Books, 1981), 99.

43) L. W. Butten, "A Crisis in the History of Israel," JBL 49 (1930), 55-60; N. H. Snaith, *윗글*, 19; J. A. Montgomery, *윗글*, 74; J. Gray, *I & II Kings: A Commentary*, OTL (London: SCM Press, 3rd 1977), 88; K. R. Gros Louis, "The Difficulty of Ruling Well: King David of Israel," Semeia 7 (1977), 15-33; D. M. Gunn, *윗글*(1978), 106; K. W. Whitelam, *The Just King: Monarchical and Judicial Authority in Ancient Israel* (JSOTS 12,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79), 151; H. Hagan, *윗글*, 320-321; B. O. Long, "Darkness between Brothers," JSOT 19 (1981): 79-85; T. Ishida, "Solomon's Succession to the Throne of David: A Political Analysis," in *Studies in the Period of David and Solomon and Other Essays*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82), 175-187; D. Marcus, "David the Deceiver and David the Dupe," PText 6 (1986), 163-183. S. Weitzman, *Solomon: the Lure of Wisdom* (New Haven/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11), 41.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볼 때 전자의 견해가 더 설득력이 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1:30)

위의 말씀은 밋세바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 간청함으로 자신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 계승에 대한 약속을 확증하는 구절이다. 드브리스는 다윗이 밋세바에게 한 이 약속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설명한다. 첫째는 증인으로서 다윗이 야훼에게 호소하는 것이며(29b), 둘째는 다윗의 이전 서약을 인용하는 비교절이며(30a), 마지막으로 다윗의 현재 서약의 내용(30b)이다.⁴⁴⁾ 이제 다윗이 신하들을 불러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하며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삼대 왕이 될 것을 선포한다.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위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מֶלֶךְ)로 지명하였느니라”(1:35)

구약에서 מֶלֶךְ 용어는 이전에 사울 왕(삼상 10:1)과 다윗 왕(삼하 7:8)에게 붙여졌던 공식적인 관직을 나타내는 칭호이다.⁴⁵⁾ 여기서 다윗이

44) S. J. DeVries, *윳글*, 16.

45) 리히터(W. Richter)는 이 칭호가 원래 카리스마틱한 지도자에게 붙여지는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글뤽(J. J. Glück)은 이 용어를 아모스 1장 1절의 목자(나카드)와 관련지어 나기드는 이상적인 목자로서의 왕에 대한 호칭이라고 제안하였다. 리핀스키(E. Lipinski)는 이 용어를 왕위 계승의 왕자에 대한 명칭이라고 주장하였다. W. Richter, “Die Nāgīd-Formel,” BZ 9 (1965), 71–84; J. J. Glück, “Nagid-Shepherd,” VT 13 (1963), 144–150; E. Lipinski, “NĀGĪD, der Kronprinz,” VT 24 (1974), 497–499. Cf. T. C. G. Thornton, “Charismatic Kingship in Israel and Judah,” JTS 14 (1963), 1–11.

솔로몬을 자신의 노새에 태워(38) 즉위식에 임하도록 한 것은 다윗이 실제적으로 모든 왕적 권한을 솔로몬에게 이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⁴⁶⁾ 이제 모든 백성들의 환호성과 뿔 나팔의 팡파레로 솔로몬의 즉위식이 거행되는 모습과 함께 이스라엘의 새로운 위대한 왕 솔로몬이 탄생하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한다.

2) 나단의 조언은 참인가 거짓인가?

솔로몬 왕의 탄생에서 선지자 나단의 역할도 밋세바 못지않게 중요하다. 밋세바가 왕에게 탄원할 때 나단 자신도 왕 다윗을 알현하여 적극적으로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지지하였다. 나단이 밋세바에게 말하기 전에 그녀는 아도니야의 만행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지만, 나단의 뛰어난 책략과 신속한 개입으로 더 이상의 혼란과 비극은 초래되지 않았다. 이전의 약속을 회상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왕에게 말하는(27) 선지자 나단의 모습에 대하여, 어떤 학자들은 교활한 나단이 연로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왕에게 압력을 가하며 강압적으로 왕권을 탈취하려는 반란에 가까운 행동을 한 것이라고 비난한다.⁴⁷⁾ 그러나 포켈만이 다윗은 의식이 분명한 상태에서 후계자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며, 나단은 이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고자 진실된 조언을 하고 있다고 본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⁴⁸⁾

왜냐하면 구약에서 선지자 나단은 다윗이 겪은 위기의 순간마다 왕 곁에서 직접 죄를 고발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아도니야의 반란으로 이스라엘이 풍전등화

46) S. J. DeVries, *룻*, 16-17; J. A. Montgomery, *룻*, 76; cf. J. Gray, *룻*, 90.

47) J. S. Ackerman, "Knowing Good and Evil: A Literary Analysis of the Court History in 2 Samuel 9-20 and 1 Kings 1-2," *JBL* 109 (1990), 41-60.

48) J. P. Fokkelman, *룻*, 361.

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을 기대하는 심정으로 왕께 나아갔을 것이다. 열왕기서에서 선지자들의 활동이 왕들의 통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때, 왈트키(B. K. Waltke)가 선지자 나단의 개입으로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한 것은 새 왕의 통치가 선지자의 신적 말씀에 의존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주장한 것은 올바른 통찰력이다.⁴⁹⁾

3) SN 저자와 솔로몬의 왕위 계승 이유

궁중 내에서 솔로몬의 변증가로 활동한 SN 저자는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다윗언약의 성취로 해석하였다. 헤르츠베르그(H. W. Hertzberg)는 사무엘하 12장 24-25절에서 솔로몬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שלום**”로 짓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으며, 다윗의 많은 아들들 중 유일하게 솔로몬을 향해서만 특별한 사랑을 표하신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 말씀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겠다고 한 다윗의 맹세와 관계되는 것으로 솔로몬의 왕위 계승의 단서를 제공하는 중요한 선언이라고 주장하였다.⁵⁰⁾ 이와 관련하여 흥미롭게도 알스트룀은 나단이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었던 바로 그 시점에 다윗이 그 맹세를 하였다고 본다.⁵¹⁾ 이처럼 SN 저자는 솔로몬의 즉위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요 약속이었음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그를 높이시고 친히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다. 실제로 솔로몬은 선왕의 서거 이후에만 왕위에 오를 수 있었으나, 아도니아의 반란

49) B. K. Waltke and Charles Yu, *An Old Testament theology: An Exegetical, Canonical, and thematic Approach* (Grand Rapids: Zondervan, 2006), 705.

50) H. W. Hertzberg, *윗글*, 317.

51) G. W. Ahlström, *윗글*, 103.

으로 솔로몬은 급히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이 말씀은 궁중내의 왕위 쟁탈전에서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를 이미 예시하고 있는 것이다.

솔로몬의 왕위 등극 과정을 보면, 아도니아와 솔로몬은 극과 극을 이루는 대조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아도니아는 교만과 허영심에 가득 차 자신을 스스로 높여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도모하여 역모 죄로 패망에 이르는 반면, 그의 라이벌 솔로몬은 어떤 정치적 음모나 반역도 피하지 않았고 단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심으로 왕위를 계승하게 된 것이다. SN 저자의 눈에 비친 솔로몬의 즉위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와 같이 저자는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솔로몬의 왕위는 찬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언약에 근거하며, 부왕 다윗의 맹세와 선위에 따라 이루어진 합법적인 계승임을 만천하에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6. 나가는 말

다윗 왕궁에서 벌어지는 왕위를 둘러싼 치열한 권력 투쟁은 최후의 승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됨으로써 막을 내린다. 하지만 왕위 계승의 서열에서 정당성을 가졌던 우선순위의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하고 최하위 순위였던 솔로몬이 갑자기 왕으로 즉위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당시 백성들 사이에 새 왕에 대한 여러 추문들과 비난의 목소리들은 꼬리를 물고 일어났으며, 위기에 처한 왕궁에서는 최소한의 해명이나 정당성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을 자세히 알고 있는 SN 저자는 왕궁 스캔들을 신학적으로 잘 해석하여 그러한 이슈들에 정면 대응하기 위한 의도로 계승내러티브를 기록하게 되었다.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세 후보들은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특권과

정당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야훼의 율법을 어기고 강간, 살인, 반역 등의 중죄를 범하였던 인물들이다. 저자는 율법적으로 결합이 있는 그들이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기엔 모두 부적합한 후보들임을 자신의 뜻으로 피력하였다. 결정적인 부적합함은 도덕적 결합으로 그들은 성적 스캔들의 죄를 범함으로써 인해 이스라엘을 통치할 인물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궁중 변증가인 저자는 솔로몬이 그들과 달리 왕이 되고자 어떠한 군사적 준비도 하지 않았으며, 부왕의 후궁을 취하는 성적인 죄도 짓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그들과는 아주 다른 인물임을 부각시킨다. 특히 저자는 다윗의 아들들 중 오직 솔로몬만이 다윗 왕에 의해 지명(왕상 1:30, 32-35)되었으며, 아울러 왕이 정상적으로 그에게 선위를 하였기 때문에 왕위에 앉을 가장 합법적인 계승자라고 피력하면서 대중들의 추문을 반박하고 솔로몬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SN 저자는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할 때 등장하는 인물들의 입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함으로써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탁월한 기법을 사용하였다.⁵²⁾ 그는 솔로몬의 등극을 다윗언약의 성취로 재해석하여 솔로몬의 왕위 계승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며 이것에 근거하여 다윗도 솔로몬의 선위를 결정한 것임을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솔로몬의 등극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합법적이고 당연한 결과이다. 그는 이러한 신학적 해석을 통하여 현재의

52) 드브리스는 SN 저자의 감정 이입 기법을 강조하였다. 그에 의하면, 먼저 다윗이 자신의 약속한 바를 오늘날 솔로몬에게 이를 것이라고 새 약속을 하자(29-30절), 밧세바는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31절) 라고 응답하였다. 이 말은 왕의 말의 효용성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솔로몬이 실제로 왕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브나야는 야훼가 다윗의 말을 확증하기를 바라는 바(36절)를 처음으로 표현하였다. 이어서 야훼가 다윗보다 솔로몬의 왕위를 더 위대하게 축복하리라(37절)는 반어적인 소망의 말을 언급함으로써 법적적인 효과가 있도록 하였다. 왜냐하면 다음 등장 인물인 요나단이 아도니아 일행들이 잔치를 마칠 때쯤 요나단이 그들에게 다윗이 세워진 새 후계자를 볼 정도로 충분히 오랫동안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48절) 바로 전에, 모든 왕의 신하들이 다윗보다 영화로운 솔로몬의 왕위의 영원성을 묘사하는 동일한 감정을 표현(47절)했기 때문이다. S. J. DeVries, *룻길*, 10-11.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SN 저자의 세련되고 탁월한 감정 이입 기법이 아니었다라면, 우리는 단순한 세속사적이고 외적인 정치적 스캔들 외에는 더 아는 바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계승내러티브는 새 왕이 옹립되는 극도의 혼란기에 대중의 의혹과 비난을 해소하고 솔로몬의 집권 초기에 당면한 정치적 위기에 해법을 찾고자 기록된 궁중 변증서로서 정치적 선전물(political propaganda)의 기능을 하고 있다.

7. 참고문헌

- 김희권, “통일군주 다윗의 남북화해와 통일정책,” 『구약논단』 47집 (2013년 3월), 95-132.
- 노희원, 『사무엘하』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이종근, “히타이트 텔레피누 칙령과 고대 이스라엘의 왕위계승,” 『구약논단』 43집 (2012년 3월), 178-204.
- 이희학, “이스라엘 왕국 초기에 일어난 반왕권적 저항들-압살롬과 세바의 반란이 갖는 역사신학적 의의,” 구약논단 10집 (2001년 4월), 43-63.
- Avioz, M., “Divine Intervention and Human Error in the Absalom Narrative,” JSOT 37 (2013), 339-347.
- Ackerman J. S., “Knowing Good and Evil: A Literary Analysis of the Court History in 2 Samuel 9-20 and 1 Kings 1-2,” JBL 109 (1990), 41-60.
- Ahlström, G. W., “Solomon, the Chosen One,” HR 8 (1968), 93-110.

- Alter, R.,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New York: Basic Books, 1981).
- Anderson, A. A., *2 Samuel*. WBC 11 (Waco, TX: Word Books, 1989).
- Berger, R. D., *1, 2 Samuel*. NAC 7 (Nashville: Boardman & Holman, 1996).
- Bright, J., 『이스라엘의 역사』 엄성옥 역 (서울: 은성, 2002).
- Brueggemann, W., "David and His Theologian," *CBQ* 30 (1968), 156-181.
- _____, *David's Truth in Israel's Imagination and Memory* (Philadelphia: Fortress, 1985).
- _____, *1 & 2 Kings*. SHBC (Macon, GA: Smyth & Helwys, 2000).
- Butten, L. W., "A Crisis in the History of Israel," *JBL* 49 (1930), 55-60.
- Conroy, C., *Absalom, Absalom! Narrative and Language in 2 Sam 13-20*. AnBib 81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78).
- DeVries, S. J., *I Kings*. WBC 12 (Waco, TX: Word Books, 1985).
- De Vaux, R., *Ancient Israel: Its Life and Institutions* (New York: McGraw-Hill, 1961).
- Flanagan, J. W., "Court History or Succession Document? A Study of 2 Samuel 9-20 and I Kings 1-2," *JBL* 91 (1972), 172-181.
- Fleming J., *Personalities of the Old Testament*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39.
- Fokkelman, J. P., *Narrative Art and Poetry in the Books of Samuel: A Full Interpretation Based on Stylistic and Structural Analyses*. V. I. *King David (II Sam. 9-20 & I Kings 1-2)*

- (Assen: Van Gorcum, 1981).
- Gray, J., *I & II Kings: A Commentary*. OTL (London: SCM Press, 1980).
- Gunn, D. M., "Narrative Patterns and Oral Tradition in Judges and Samuel," VT 24 (1974), 286-317.
- _____, "David and the Gift of the Kingdom (2 Sam 2-4, 9-20, I Kg 1-2)," Semeia 3-4 (1975), 14-45.
- _____, "Traditional Composition in the 'Succession Narrative'," VT 26 (1976), 214-229.
- _____, *The Story of King David: Genre and Interpretation* (JSOTSup 6. Sheffield: JSOT Press, 1978).
- Hagan, H., "Deception as Motif and Theme in 2 Sam 9-20; 1 Kgs 1-2," Bib 60(1979), 301-326.
- Hertzberg, H. W., *I & II Samuel: A Commentary*. OTL (London: SCM Press, 1964).
- Ishida, T., "Solomon's Succession to the Throne of David: A Political Analysis," in *Studies in the Period of David and Solomon and Other Essays*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82), 175-187.
- Jensen, J. L., "Desire, Rivalry and Collective Violence in the 'Succession Narrative'," JSOT 55 (1992), 39-59.
- Keys, G., *The Wages of Sin: A Reappraisal of the 'Succession Narrative'* (JSOTSup 221.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 Lipinski, E., "NAGID, der Kronprinz," VT 24 (1974), 497-499.
- Long, B. O., "Darkness between Brothers: Solomon and Adonijah," JSOT 19 (1981), 79-94.

- Louis, K. R. G., "The Difficulty of Ruling Well: King David of Israel," *Semeia* 7(1977), 15-33.
- Marcus, D., "David the Deceiver and David the Dupe," *PText* 6 (1986), 163-183.
- McCarter, P. K., "'Plots, True or False': The Succession Narrative as Court Apologetic," *Int* 35 (1981), 355-367.
- _____, *II Samuel: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Notes and Commentary*. AB 9 (Garden City, NY: Doubleday, 1984).
- Mendenhall, G. E., "The Monarchy," *Int* 29 (1975), 155-170.
- Montgomery, J. A.,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f the Books of Kings*. ICC (Edinburgh: T & T Clark, 1960).
- Noth M., *The Deuteronomistic History* (JSOTSup 15; Sheffield: JSOT Press, 1981).
- Newmann, M., *The People of the Covenant: A Study of Israel from Moses to the Monarch* (Nashville: Abingdon, 1962).
- Propp, W. H., "Kinship in 2 Samuel 13," *CBQ* 55 (1993), 39-53.
- Provan, I. W., "Why Barzillai of Gilead (I Kings 2:7)?, Narrative Art and the Hermeneutics of Suspicion in I Kings 1-2," *Tyndale bulletin* 46 (1993), 103-116.
- Richter, W., "Die Nāgīd-Formel," *BZ* 9 (1965): 71-84.
- Robinson, J., *The First Book of Kings*. CBC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1972).
- Rost, L., *The Succession to the Throne of David*, M. D. Rutter & D. M. Gunn (trans.) (Sheffield: Almond Press, 1982).
- Roth, W. M. W., "NBL," *VT* 10 (1960), 394-409.
- Smith, M., "The so-called 'Biography of David' in the Book of

- Samuel and King,” HTR 44 (1951), 167-169.
- Snaith, N. H., “The First and Second Books of Kings,” in *The Interpreter’s Bible* V. III (New York/Nashville: Abingdon, 1952).
- Thornton, T. C. G., “Charismatic Kingship in Israel and Judah,” JTS 14 (1963), 1-11.
- Tsevat, M., “Marriage and Monarchical Legitimacy in Ugarit and Israel,” JSS 3 (1958), 237-243.
- Von Rad, G., “The Beginnings of Historical Writing in Ancient Israel,” in *The Problem of the Hexateuch and Other Essays* (Edinburgh: Oliver & Boyd, 1966), 166-204.
- Walke, B. K. & Yu, Charles., *An Old Testament theology: An Exegetical, Canonical, and thematic Approach* (Grand Rapids: Zondervan, 2006).
- Weingreen, J., “The Rebellion of Absalom,” VT 19 (1969), 263-266.
- Weitzman, S., *Solomon: the Lure of Wisdom* (New Haven/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11).
- Wenham, G. J., “B**tūlāh* ‘A Girl of Marriageable Age,’” VT 22 (1972), 326-348.
- Whitelam, K. W., *The Just King: Monarchical and Judicial Authority in Ancient Israel* (JSOTSup 12. Sheffield: JSOT Press, 1979).
- Whybray, R. N., *The Succession Narrative: A Study of II Samuel 9-20 and I Kings 1 and 2*. SBT Second Series 9 (London: SCM Press, 1968).

검색어

왕위계승 기사

궁중 음모

솔로몬 등극

합법적인 왕

정치적 선전물

궁중 변증서

“אני אמלך”

-Twist in the Line of Succession to the Throne of David-

Jong-Hee Son

Lecturer at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Aristotle University, Ph. D.

Who will succeed the throne of David? This has been an issue of utmost importance not only for the people of Israel but also within the court of Davi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imogeniture as a *fait accompli* in Israel, Amnon is David's eldest son and therefore heir to the throne. However, the line of succession within the royal palace is completely twisted and eventually, Solomon succeeds David. Regal power in David's house is not smoothly transitioned, and the court is exposed to urgent crisis with continuous political power struggles among the princes related to the succession. What is the reason for such a twist of events? Was there a redactor's activity? Why was SN(II

www.kci.go.kr

Sam. 9-20 & I Kgs. 1-2), which revolves around the succession of the throne, written? In order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study looks at each of the four candidates for the throne in order, and searches for the purpose and intentions of the Succession Narrative's author.

The author of the Succession Narrative, who worked as Solomon's apologist, reveals the reasons why Amnon, Absalom and Adonijah were all rejected as David's successor, though they were the most privileged. With his own pen, the author reveals that Solomon is the only successor set by Yahweh. The above three candidates violated Yahweh's law and committed crimes such as rape, murder and rebellion, even though they had the legitimacy and rights to succeed David's throne. In that sense, those who committed crucial sins under the law cannot claim a seat to the throne even though they are the King's eldest or second son.

Therefore, in the eyes of the Succession Narrative's author, Solomon's accession is the fulfillment of the Davidic covenant, serving as a legitimate, expected result in accordance to Yahweh's will. Through such theological analysis, the author explains why Solomon, the youngest son and last candidate for the throne, was able to continue the kingdom, and seeks to find a solution to the immediate political crisis during the early years of Solomon's reign. Thus, the Succession Narrative functions as a court apologetic account to resolve public suspicions and accusations, while serving as Solomon's political propaganda.

Keywords

the Succession Narrative

Intrigue of the Court

Solomon's access

Legitimate King

political propaganda

court apologetic account

- 투고일: 2016년 4월 16일
- 심사일: 2016년 4월 31일
- 게재 확정일: 2016년 5월 9일

www.kci.go.kr